

피아니스트 임효선·바리톤 김지훈... '관현악의 밤' 물들인다

국내의 활약 음악가들 한자리에... 19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연장 지휘자 박인욱...카메라타 전남, 드보르작 '교향곡 8번 사장조' 연주

퀸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입상한 피아니스트 임효선, 광주성악콩쿠르 1위에 오른 바리톤 김지훈...
세계와 광주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음악을 매개로 하나가 된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풍년)은 '정음성 음악제: 관현악의 밤'을 오는 19일(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연장에서 연다. 국제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임효선, 올해 광주성악콩쿠르 1위에 오른 바리톤 김지훈, 박인욱 지휘자 등이 출연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오페라 망부'는 서곡 주제에 의한 교향적 환상곡'이 막을 연다. 작곡가 나실인이 오페라 '망부' 서곡을 관현악 연주에 맞게 편곡한 작품인데, 나무꾼 남편이 돌아 돼 강속에 빠진 뒤 아내가 구름으로 변해 온 강을 뒤졌다는 망부설 전설을 악상에 녹였다.

작년 음악제에서 울려 퍼졌던 가곡 '산촌'은 바리톤 김지훈이 들려준다. "달구지 가는 소리는 산령을 도는데/ 물길은 아까비 모습이 꽃인양 굽구나" 등 토속적인 가사는 전원풍경을 연상케 한다. 작곡에 조두남.
오페라 세빌리아 이발사 중 '나는 이거리의 만물 박사'도 관객들의 귀를 즐겁게 한다. 자신이 '거리 최고의 만물박사'임을 자처하며 군중을 '호명'하는 레퍼토리는 오늘날에도 다양한 예술 장르에서 재창작되고 있다.

한편 피아니스트 임효선이 들려주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다 단조'는 이번 공연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목이다. 라흐마니노프가 우울증을 겪으며 이를 극복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악곡에 담겨 있다. 1901년 모스크바에서 초연할 당시에도 대성공을 거뒀는데, 러시아에 만연했던 우울한 풍조나 데카당티즘(뉘페)적 예술 흐름에 '구원의 빛'처럼 다가오는 작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피아니스트 임효선은 서울예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커티스 음대와 이탈리아 이볼라 음악원 마스터과정을 수료했다.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을 최고점 졸업했으며, 2011년에는 경희대 피아노과 교수로 임용(최연소)되는 등 두각을 나타내 왔다.
또한 콘체르트 하우스(베를린)를 비롯해 콘서트 하우스(암스테르담), 뮌헨(브뤼셀), 링컨 센터(뉴욕), 디즈니 콘서트홀(LA) 등 세계 각지



피아니스트 임효선



이번 '관현악의 밤' 공연에서는 카메라타 전남이 임효선 피아니스트와 김지훈 바리톤과 협연할 예정이다.

유수의 홀에서 연주하며 이름을 각인시켜 왔다.
아울러 2003년 비오티 국제콩쿠르에서는 1위(2, 3위 없음)와 특별상, 청중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2007년에는 세계 3대 음악콩쿠르로 꼽히는 '퀸 엘리자베스 피아노 콩쿠르'에서 상위 입상했으며 베토벤 비엔나 국제콩쿠르, 후기 소나타 특별상 등을 수상했다.
임씨는 "올해 라흐마니노프 탄생 150주년을 맞아 협주곡 2번을 들려드리게 돼 설렌다"며 "광주를 오랜만에 다시 찾아 라흐마니노프 곡에 담긴 인생의 희로애락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카메라타 전남(약장 임주연)이 연주하는 드보르작 '교향곡 8번 사장조'도 울려 퍼진다. 드보르작이 머물렀던 프라하 서남부 고원지대 비소카 마을의 풍경과 보헤미안적 아름다움이 녹아 있는 작품이다.
카메라타 전남은 2017년 광주에서 첫 연주를 시작으로 창단한 오케스트라이다. 2022년 영·호남 교류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예술교류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지휘자 박인욱은 서울예고, 서울대 음대에서 수학했으며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음대를 졸업했다. 현재 전남대 음악학과 교수이며 카메라

라타전남 음악감독. 바리톤 김지훈은 연세대 음대 성악과, 동 대학원 석사과정(졸업예정)에서 공부했으며 제16회 광주성악콩쿠르 1위, 제35회 한국성악콩쿠르 2위 등을 차지했다.
광주문화재단 이리라 담당자는 "이번 연주는 세계와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를 초청해 펼쳐지는 음악회"라며 "깊이 가는 가을 밤 풍부하고 수준 높은 레퍼토리로 힐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석 초대. 광주문화재단 문화사업팀 문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문순태 대하소설 '타오르는 강' 모티브 학술대회 열린다

나주학회, 20일 나주 어울림센터 소설 낭독·시 낭송·작품전·토론 등

문순태의 대하소설 '타오르는 강' (전 9권)은 구한말을 배경으로 노비들의 삶과 민중운동의 발생과정을 역동적으로 풀어낸 수작이다. 민중운동의 발생과정을 보여주고 있지만 틀에 박힌 전개와는 거리가 멀다. 역사의식에 토대를 둔 작가 정신과 활달한 상상력이 결합해 웅혼한 서사를 만들어낸다.
소설에는 나주 공상면 토지 수탈 사건을 비롯해 노비제세제도 폐지, 동학농민운동, 목포 개항 등 구한말과 근대의 굵직한 사건들이 모티브로 등장한다. 여기에 광주학생독립운동 등 주요 사건들은 긴장감과 함께 이야기에 재미를 불어넣으며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특히 나주 영산포와 영산강의 지리는 물론 방언, 생태, 공간 등 근대 콘텐츠가 풍부하게 담겨 있어 '나주 인문학의 보고'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콘텐츠

와 연계한다면 영산강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격동의 근현대사를 다룬 대하소설 '타오르는 강'을 모티브로 한 학술대회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사)나주학회(이사장 최영관)는 오는 20일 오후 3시 '타오르는 강' 학술대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나주시 삼영동 어울림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문순태 작가의 소설 낭독을 비롯해 시인들의 시낭송, 작품전, 토론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영산강의 인문학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작품과 연계된 활용방안을 모색한다는 의의도 담고 있다. 나주축제 '영산강은 살아있다'의 부대 행사로 열리며 나주학회 정년봉 문학반이 주관한다.
먼저 학술발표는 박일우 교수(광주대)가 '역사 균열의 서사와 공간의 재구성', 조은숙 박사(광주대)는 "타오르는 강"의 인물상을 통한 영산강의 장소성 연구"를 발표한다. 이어 특별 시낭송에서는 나주학회 전속 회원이 '서서평의 징검다리'를 선사

할 예정이다.
'타오르는 강'을 접목한 의미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이영지(나주학회)는 '소설 '타오르는 강' 속에 나타난 나주읍시 콘텐츠 활용방안'을 발표하고 최미성(동산대)은 '소설 '타오르는 강' 속 생활 복식 문화'를 풀어낼 계획이다.
연계 작품전도 진행된다. 최미성의 '두렁치마'와 신진화(나주학회)의 '명문장', 이경희(나주학회)의 '보리수단과 썩떡', 이정희(나주학회)의 '맨드라미전'이 방문객들을 만난다. 이어 오후 5시부터는 시민과의 토론이 예정돼 있으며 기타 활동으로 '명문장 캘리그라피 쓰기'가 펼쳐진다.
이영지 정년봉문학방 회장은 "이번 '타오르는 강' 학술대회는 소설이 품고 있는 영산강의 풍부하면서도 다채로운 가치를 다각도로 조명하는 데 있다"며 "2023나주축제 기간에 열려 그 의미가 더 깊다"고 밝혔다.
한편 학술대회에 앞서 최영관(전남대학교 명예교수) 나주학회 이사장의 개회사와 신정훈 국회의



담양 생오지에서 포즈를 취한 문순태 소설가. <광주일보 DB>
원, 윤병태 나주시장, 이상만 나주시의회 의장, 이기준 영산포발전협의회장, 문순태 작가의 측사 등이 있을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산조, 그 아름다움' 21일 국립남도국악원 진악당

산조(散調)는 19-20세기에 등장한 국악 갈래로, 민속악에 속하는 기악 독주곡이다.
국립남도국악원은 국악연주단이 기악단 정기공연 '산조, 그 아름다움'을 오는 21일(오후 3시) 펼친다. 국악원 진악당에서.
공연은 김일구, 한갑득, 박종선, 김동진, 서용석 명인의 기악을 중심으로 구성된 '산조제주', '산조합주'를 들려줄 예정이다. 먼저 김일구 기악에 의한 '산조합주', 서용석류 '피리산조' 제주, 한갑득류 '거문고산조'에 의한 '산조합주'가 울려 퍼진다.
산조는 기악 독주곡으로 만들어졌지만 악기를 하나 또는 둘씩 편성해 '합주' 형태로 선보이기도 한다. 가야금, 거문고, 해금, 피리, 아쟁 등을 결집해 연주자의 기량을 보여준다는 취지에서다.
이어 박종선류 아쟁산조에 의한 '산조합주'와 김동진류 '대금산조', 서용석 기악에 의한 '산조합주' 순으로 들려줄 예정이다.
국립남도국악원 심인택 예술감독은 "명인들의 예술혼을 이어가는 국악 산조무대를 마련했다"며 "산조에 깃든 서정성, 심미성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 참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화사하고 오묘한 다완의 세계'

조재호 다완전, 23일까지 봉은사... 찻사발 작품 108점

남도 도자기에는 오묘한 변화와 겸박함이 담겨 있다. 남도인들의 심미적인 가치와 성정이 녹아 있기 때문이다.
남도 도예 미학의 정수를 보여주는 전시회가 열린다. 봉은사(서울 삼성동 소재·주최 원명스님)가 전통 재창조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선보이는 '화사하고 오묘한 다완의 세계

-조재호 다완전'이 그것.
전시는 2023 불교전통차문화대학제 일환으로 펼쳐지며 찻사발 작품 108점이 출품됐다. 이번 전시는 도예품 중에서도 차를 마시는 데 사용하는 그릇 '다완(茶碗)'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담방찻사발', '개화문찻사발' 등은 소담하면서도 다양한 색채가 가미된 아름다움이 깃들여 있다.

또 중국 송나라 도예기술을 도입한 자줏빛 '균요', 그물망 실선이 돋보이는 '가요', 무지갯빛과 기름방울 문양이 강조된 '요변천복' 등 조형적 기법이 담긴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전시 비평문을 쓴 유홍준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은 "조재호의 다완에는 1천 년 다도 역사에서 한-중-일 동양다완이 추구해온 미학이 모두 깃들여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립대 도예차문화과 교수로 정년퇴임한 조도예가는 전라남도 문화상과 대동전통문화상을 수상했다. 나주(남평) 작업실에서 전통분청사기 제작에 전착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보안형문진사 재호찻잔'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